



“대림 제 1 주일”

가 해

<http://www.sjkoreancatholic.org/>

[마태, 24, 37-44]

2010.11.28.

금주의 강론

[박상대 신부님 강론에서]



오늘 대림 제1주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2011년 “가해”와 “홀수해”의 전례주년을 시작한 셈이다. 따라서 올해의 전례주년동안 우리는 부활시기와 특별한 대추

일을 제외한 모든 주일미사에서 마태오복음을 미사의 복음으로 봉독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전례주년은 매년 기다림과 준비로 특성화된 대림시기로 시작된다. 대림(待臨)은 말 그대로 “올 것에 대한 준비”를 말하며, 대림시기는 그 준비기간이다. 무엇이 온다는 것이며,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인가? 교회가 말하는 대림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므로, 하나님의 이 땅에 “벌써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성탄과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의 종말 설교(24-25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늘 깨어 준비하고 기도함”을 인자의 재림에 대한 준비과제로 제시한다. 노아의 홍수(창세 6-8장) 때나 재산을 노리는 도둑처럼 인자의 재림이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재림하시는 인자 앞에는 누구나 철저히 홀로 서야 한다. 따라서 ‘늘 깨어 준비하

고 기도하는 일’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각자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포하고 있는 대림시기는 우리에게 과거지사의 성탄과 미래사건의 재림을 한꺼번에 묵상하도록 가르친다.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한꺼번에 현재의 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 현존시키는 것” 뿐이다. 매년 같은 일을 한다고 식상해서는 안 된다. 벌써 오셨던 하느님과 다시 오실 하느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나, 우리 자신이 달라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분명 작년의 내가 아니며, 어제의 내가 아니다. 거울을 앞에 놓고 자신의 겉과 속을 비추어 보라. 분명히 나의 모습을 달라졌다. 우리는 성장했고, 변했다. 그래서 올해의 대림도 그만큼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전례력의 마지막 날인 어제 연중 제34주간 토요일의 복음(루가 21,34-35)과 새 전례력의 시작인 오늘 대림 제1주일의 복음(마태 24,37-44)이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느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대림시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박상만 베드로 신부님 대림 특강; 12월 1 (수) 7:30 -9:30
- 조 경자 율리아나 자매님 1개월 여정으로 ,한국을 방문중에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정병권 라파엘 형제님(베이스)2주간의 여정으로 한국을 다녀 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십시오.
- 박 영아 소피아 자매님은 11월 30일에 2주간의 여정으로 한국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행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성심 성가대 정기 총회;
12월 5일(일) 점심 식사후 연습실에서 개최합니다. 모든 성가대 단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재정결산 심의, 회칙 개정안 심의 (단원 회비 조항), 차기 단장 선출,2011년 성가대 계획서 등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에제18,3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2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43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44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1분 명상

♡ 상처 ♡



상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피해자처럼 행동하거나 필요 이상의 기도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피해를 입었다는 감정은
 병을 덧나게 할 뿐이다.

- 캐롤라인 미스의 《영혼의 해부》 중에서 -

상처는 눈물로 아물지 않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해도 상처는 그대로 남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상처의 순간은 아프고 쓰리지만 모든 걸 시간에 맡기고
 울을 떨고 다시 일어나 곳곳이 걸어가십시오.
 어느덧 상처는 불행의 흔적이 아니라
 행복의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겁니다.



토막 교리

“미사 도구(3)”

성작수건(purificatorium. Purificator)



미사의 영성체 후 성작과 사제의 손과 입을 닦는 작은 아마포 수건을 말한다

성작개(palla. Pall)



미사 때 성작을 제대에 가져오거나 제대에서 가져갈 때 성작에 무엇이 들어가지 않게 성작을 덮는 작은 뚜껑을 말한다. 흰색의 네모진 아마포인데 안에 딱딱한 종이 들어 있다.

● 11월 28일(일)은 대림 제 1주일입니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며, 전례력으로 ‘가해’를 따르게 됩니다. 교회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 시기가 시작됐다. 특별히 대림시기를 맞아 우리들은 각자 자신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고 구세주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 대림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할 구세주를 기다리는 전례 절기를 말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4주간의 대림 시기로 한 해의 전례 주기를 시작한다. 교회 안에서 대림 시기의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